

# 유네스코가 인정한 우수한 생태자원 풍부



## (101) 설악산 신흥사

MAB(Man And the Biosphere)는 '인간과 생물권'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기 위한 유네스코의 국제적 사업 가운데 하나이다. MAB 규정에 따라 유네스코는 세계적으로 생태계가 뛰어난 지역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세계 500여 곳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82년 설악산이 처음으로 지정받았다.

MAB는 단순한 생태계 보전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조화' 즉, 생태와 문화의 지속가능한 관계 유지에 있다. 따라서 설악산의 자연과 그 산중에서 씩씩한 불교문화와의 지속가능한 관계가 설악산 MAB의 골자이다.

설악산에는 우수한 천연기념물이 골골이 깃들여 있다. 설악산 본사인 신흥사의 전신은 신라 진덕여왕 6년(652)에 자장 율사가 창건했다는 향사(香刹寺)이다. 옛 터에 삼층석탑이 홀로 남아 옛 일을 전해주고 있다.

반달곰 동상이 인상적인 설악동 소공원 바깥으로 우회차도가 있고, 그 갖길 옆에 여러 기의 부도가 모셔져 있지만, 주변 동선(動線)에서 멀리 밀려나 있어서 찾는 이가 없다. 원래 일주문 안에 있었으나, 청동대불상이 들어서면서 제자리에서 쫓겨나 꿩다눔은 보릿자루 신세가 되어 버렸다.

청동대불상을 조성할 때 말들이 많았다. 예나 지금이나 환경단체들의 목소리는 한결같다. 설악산 MAB를 위하여 사찰의 대규모 불사가 다른 어느 곳보다도 자제되어야 한다.

소공원을 지나면 왼쪽에서 비선대 계곡물이 내려오고, 오른쪽에서는 내원암 계곡물이 내려온다. 신흥사 앞에서 합류된 두 계곡물은 '쌍천'이라는 이름을 달고 15km 떨어진 물지에서 동해로 들어간다.

쌍천은 갈수기를 제외하고는 하류까지 2급수를 유지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소공원 아래 구간에서는 몇 종의 담수어류가 나타나는데, 신흥사 주변과 비선대 계곡과 내원암 계곡 등 상류엔 한 종류도 관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도에 나온 조사보고서에도 마찬가지였다.

내원암 계곡에 걸린 세시교 다리를 건너면 신흥사 사역이다. 일주문이 외문이라면 사천왕문은 신흥사의 내문이다. 보세루 누하를 지나면 중정을 가운데 두고 극락보전, 명부전, 삼삼각 등이 뒷단에 자리하고, 아랫단에 윤적당, 청화당, 적묵당, 요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경내 식생조건은 외래종 조경수 대신 박태기, 탁송나무, 배롱나무, 단풍나무, 빛나무 등 우리 고유의 꽃나무를 심어서 수려한 느낌을 준다. 대개의 사찰이 경내에 느티나무를 두고 있는데 비해서 신흥사는 아름답게 울푸레나무들이 자리하고 있다.

울푸레나무에 대해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예전에 바위를 자를 때 울푸레나무를 썼다고 한다. 바위의



동고비어린새.



물푸레나무.

결을 따라 작은 홈을 파고 그 안에 물이 잘 스며드는 울푸레나무 토막을 박고 뜨거운 물을 계속 부으면 나무가 팽창하면서 바위가 갈라진다고 한다.

곤충들은 냉혈동물이기 때문에 생리적으로 따뜻하고 밝은 곳을 좋아한다. 따라서 출현빈도에 있어서 일사량이 많은 사찰 경내외가 더 높다. 경내에서 발견된 제일줄나비는 북방계 나비로, 줄나비 가운데는 비교적 대형에 속한다. 꽃말 외에도 짐승의 배설물이나 참나무류의 수액에도 잘 모인다.

신흥사 주변에서 발견된 양서류는 청개구리, 잠개구리, 북방산개구리, 도롱뇽, 꼬리치레도롱뇽 등이 있다. 북방산개구리는 진한 갈색 몸통에 흑갈색의 불규칙한 무늬가 있다. 주둥이 끝은 둥글고, 고막은 둥글고 뚜렷하다. 특정 야생동물 목록집에 올라 있는 보호종이다. 신흥사 경내외는 새들의 도솔천이다. 지난봄에 딱새가 극락보전 보머리에 등지를 틀더니 벌써 어린 새끼들이 이소를 해서 경내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있다. 참새들도 지붕기와와 연함 틈 사이에 등지를 틀고 어린 새끼들을 길러냈다. 담장 밖에는 어린 동고비가 비행 연습을 하고 있다.

신흥사를 중심으로 반경 1km 안에서 관찰된 여름철새로는 알락할미새, 노랑할미새, 한배지빠귀, 파랑새, 찌르레기, 쇠유리새 등이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설악을 찾는 관광객들은 산행로가 비교적 짧고 순탄한 비선대 코스, 울산바위 코스, 비룡폭포 코스를 찾는다. 그 중 비선대 코스와 울산바위 코스가 신흥사를 기점으로 한다.

신흥사에서 오른쪽 계곡을 따라 비선대까지는 3km에 가까운 숲길이 나 있다. 이 길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개설해놓은 자연탐방로이기도 하다. 교목층에는 졸참나무, 아교목층에는 쪽뽕나무,



개박달나무.



설악산 비선대 가는 숲길.

임상에는 조릿대가 우점으로 나타난다. 참나무로는 신갈나무와 굴참나무가 많다. 키 작은 나무로는 개박달나무를 비롯해서 작살나무, 때죽나무, 누리장나무, 노린재나무, 고추나무 등이 숲길 주변에 많이 보인다.

개박달나무는 북방계 식물로, 설악산 곳곳에서 쉽게 만나는 나무이다. 키가 5m 가량 자라는 중간키 나무로, 자작나무속에 들어서 일사구가 작다. 나무 껍질이 회색으로 조각조각 벗겨지는 특징이 있어서 찾기 쉬운 나무이다. 박달나무처럼 목질이 단단하여 도구재와 장식재로 쓴다.

설악산의 소나무는 수관에 따라 동북형과 금강형으로 크게 나뉜다. 동북형 소나무는 윗부분에서 줄기가 우산살처럼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특징을 보인다. 가까이로는 일주문과 부도전 주변의 소나무가 동북형 소나무의 전형형을 보여준다.

금강송은 눈이 많이 오는 영동쪽에서 많이 자라는데, 줄기는 곧게 자라고 가지는 가늘고 짧은 특징이 있다. 비선대로 가는 숲길 좌우에도 이따금 나타나 눈맛을 즐겁게 해주고, 계조암으로 가는 내원암골 물가에 여러 그루가 이따금 보인다.



북방산개구리.



솔세꽃.

나타나고 있다.

내원암은 자장 율사가 세운 향사(香刹)가 화재로 소실된 지 3년 후 의상 대사가 '능인암'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지었다고 전한다. 스님의 말씀에 따르면 겨울이면 가끔 멧돼지가 내려온다고 한다. 설악산에는 반달곰, 산양, 사향노루 등 멸종 위기의 야생동물이 살고 있으나, 신흥사 주변에 출현하는 포유류로는 멧돼지가 가장 큰 동물이다.

계조암에 이르는 동안 두 곳에 식당촌과 매점이 있었다. 파라솔에다 나무탁자까지 차려놓고 꽤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수학여행단과 단체여행객들을 배려한 편의시설이지만, 슬까지 파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내원암을 지나면서 경사가 점차 가팔라지고 돌과 바위들이 많아진다. 마지막 식당촌에 이르러 우람한 울산바위가 하늘 꼭대기에 솟아 있다. 울산바위는 공룡능선과 용암장성 등 설악산의 지형과 지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기암절벽이다.

암산에서는 지대가 높을수록 표토(表土)가 얇고, 토사유출이 많다. 특히 설악산체를 이루는 화강암은 석영, 장석, 운모가 결합된 암석으로, 물의 작용에 약하다. 물의 작용으로 그 구성요소들이 입상(粒狀)으

## 우리나라 최초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보전지역'

### 신흥사 기점 비선대·울산바위 코스 탐방객 최다

이 구간의 조분으로는 그늘사초가 우점종이다. 장마철에는 꽃들도 주춤하여 꽃봉오리를 잘 열지 않는다. 성급한 솔세꽃 몇 개체가 꽃봉오리를 열었고, 물가의 부처꽃도 몇 개체가 꽃잎을 열었다.

식물을 보면 그 산의 생태성을 가늠해볼 수 있다. 우리나라 특산종인 솔세꽃은 대개 산이 깊고 산의 생태계가 비교적 특이한 곳에서 관찰된다. 줄기는 70cm 안팎으로 곧추서서 자라고, 꽃은 하늘색이며, 가지와 줄기 끝에 달린다.

설악산을 찾는 탐방객 숫자는 연 400만 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탐방객들이 가장 즐겨 찾는 코스는 신흥사에서 계조암에 이르는 울산바위 코스이다. 초입은 시멘트 길, 나머지는 돌길이다.

계조암으로 가는 숲길은 비선대 코스처럼 평탄하지는 않지만, 소나무가 간간히 섞인 혼효림 숲길이다. 설악산에는 식물구계상 특이식물들이 많이 나타난다. 북방인자로는 눈썹백, 분비나무, 눈잣나무, 바림꽃, 솔나리, 만주송이풀, 노랑만병초 등이 있으나, 해발 1500m 이상 능선과 산록에서 나타난다.

남방인자로서 발견된 까치박달, 다릅나무, 으나무, 쪽뽕나무, 때죽나무 등은 비선대 코스와 계조암 코스에서도 서식이 확인되고 있다. 신흥사 지역은 해발 500m 이하로 지대가 낮고, 바다가 가까워 따뜻한 해양성 기후의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남방계 식물들이

로 서로 분리되어 토사를 많이 만들게 된다. 경사가 가파른 곳에서는 토사유출이 심해서 식물들이 살아가는 데 여간 힘들지 않다.

계조암은 한자로 '繼祖庵'이라고 쓴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이름에 걸맞게 자장 율사가 창건한 후로 의상, 원효 등 뛰어난 조사스님들이 대를 이어 수행한 곳이다. 흔들바위 주변에는 천변(川邊)에서나 볼 수 있는 늪은 왕버드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계조암 일대는 형국상 물이 모임을 말해주고 있다. 식생학적으로 왕버들은 수기(水氣)를 가까이하는 나무다. 옛 사람들은 나무를 보고 땅속의 지하수 체계를 짚어보았다. 아마 자장 율사가 이곳에 왕버들이 있음을 보고 겨울에 물이 마르지 않을 것임을 예지했는지 모를 일이다.

왕버들과 이웃한 소태나무도 바위에 기대어 서 있다. 쓴맛을 흔히 '소태맛'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나무가 줄기에서 쓴맛이 나는 소태나무이다. 흰색 꽃은 이미 지고 보이지 않는다.

가을에 빨간 열매가 달린다. 계조암을 지나 울산바위 정상까지는 1km 거리이다. 절반은 숲길이지만, 나머지 구간은 철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간다. 정상에 오르면 동해 바다가 발아래 보이고 대청봉도 멀지 않다.

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temple-e@hanmail.net

이름	나이	신장	학력	직업	주소지	이름	나이	신장	학력	직업	주소지		
정영식	1964년생	170	고	졸	공무원	서울	김창영	1970년생	163	대	졸	복지사	충주시
임용우	1966년생	174	고	졸	자영업	청주	박영학	1967년생	170	고	졸	회사원	고양시
노해용	1972년생	173	고	졸	C E O	청주	홍진석	1968년생	167	대	졸	시설관리	부천시
이준우	1964년생	168	고	졸	회사원	대전	조성현	1969년생	170	전문대	회사원	서울	
김현태	1957년생	173	고	졸	회사원	대구	배병언	1967년생	169	대	졸	회사원	부산
조복재	1965년생	180	고	졸	일반전문직	구미	전남진	1972년생	172	전문대	차기공사	서울	
임태범	1981년생	180	대	졸	공무원	서천	이규안	1970년생	165	대	졸	건설사	광주시
김기범	1969년생	180	전문대	졸	자영업	서울	이광표	1968년생	168	고졸자	영업	서울	
홍봉표	1967년생	180	전문대	졸	회사원	경기고양	권순석	1978년생	171	대	졸	건설사	경기도
최영길	1974년생	165	고	졸	회사원	경기시흥	박영규	1966년생	182	고졸자	영업	전주시	
오성택	1965년생	165	고	졸	회사원	경기부천	문윤중	1970년생	163	고졸자	영업	광주시	
한용석	1975년생	167	고	졸	회사원	부여	김길성	1975년생	175	전문대	공무원	대전	
최경복	1971년생	174	고	졸	회사원	전주	민익식	1969년생	172	고	졸	운송업	부산
이정배	1966년생	172	고	졸	회사원	충북영동	최정우	1978년생	178	대	졸	건설사	서울
임형준	1973년생	176	전문대	졸	회사원	대전	노금광	1972년생	162	고	졸	회사원	진해시
이영근	1976년생	165	대	졸	회사원	대전	정연중	1959년생	165	고	졸	공무원	충남
김대중	1974년생	173	대	졸	회사원	경기용인	오세준	1975년생	175	고	졸	회사원	경기도
정화선	1960년생	175	대	중퇴	공무원	경기이천	박현득	1964년생	163	고	졸	회사원	서울
이동희	1972년생	180	대	졸	회사원	경북예천	임상훈	1973년생	172	대	졸	회사원	경기도
강정복	1965년생	170	고	졸	자영업	인천	연길호	1973년생	175	대	재학	공무원	경기도
정지영	1974년생	174	중	졸	회사원	수원	박성준	1965년생	169	고	졸	회사원	대구시
이현철	1972년생	175	방통대	재	회사원	강원태백	박준규	1971년생	170	대	졸	건설사	제천시
김중희	1963년생	163	고	졸	회사원	경기인양	최용우	1962년생	164	고	졸	자영업	홍성군
이영일	1965년생	165	고	졸	회사원	경기인양	조현욱	1972년생	166	고	졸	조리사	충북
박중구	1972년생	175	고	졸	회사원	경기인양	김진목	1969년생	170	고	졸	공무원	충북
최용상	1970년생	170	방통대	재	공무원	서울	김재원	1966년생	175	고	졸	회사원	대구
이동원	1970년생	172	대	졸	회사원	서울	서준은	1971년생	170	고	졸	회사원	경기도
남정대	1971년생	173	고	졸	회사원	경북구미	이건우	1971년생	173	대	졸	자영업	경주시
유근성	1970년생	185	전문대	졸	회사원	충북옥천	박전수	1975년생	160	전문대	발전공사	강원도	
박이수	1960년생	168	중	졸	회사원	경기수원							
배영순	1956년생	150	대	중퇴	자영업	경기화성							
오성택	1970년생	165	고	졸	사업예정	경기부천							
변희섭	1965년생	174	고	졸	회사원	경북구미							
김대환	1973년생	172	대	졸	학원실장	광주광역시							

[캠페인 PR]

## “아름다운 인연 찾기” 공개 구혼

현대불교신문 독자님들을 위한 인연 찾기 캠페인입니다.  
부처님 제자로서 서로 아끼고, 함께 닦아 갈 인연을 찾습니다.  
오랜 인연의 기다림으로 여성 불자님들의 전화를 기다립니다.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대성사 주지 혜철**

**주**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지사장 혜철스님 충북 옥천읍 옥천읍 교동리 297-4 대성사  
**주** 전화 | 043)732-5560 / 010-9422-8453 팩스 | 043)732-5520  
**주** 홈페이지 | www.dss.or.kr 다음카페 | cafe.daum.net/dasungsa